

금요기도회

-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쓴 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9:12~27)

- 2023.05.26(금) 저녁8시30분 -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1)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보답하며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저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보답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건만 저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했고 정성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또한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으셨건만 저는 이제껏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내 일을 행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심히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하나님, 저는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건만, 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면서도 불신영혼을 구출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그리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영혼들은 지금도 악한 영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영적인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쓰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온갖 저주에 시달리고 있어도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다가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무기력한 삶을 사는데도, 저는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인 영혼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 주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불신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일하실 텐데, 저는 주님께 인색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내 육체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전도하는 일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시간과 물질,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건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약한 지체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일, 내 가족과 구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쓰부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어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장차 천국에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천국 잔치에 나를 참여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저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셨는데(마25:29),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하셨는데(잠19:24), 왜 주님의 일에는 이렇게 게을렀는지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합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롬12:11), 저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며, 자랑스러운 면류관도 얻는다고 하셨는데(계2:10), 저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천국에서 기업도 주시고 왕노릇하는 신분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눅19:17).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진실로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죄인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 십자가 세우기 -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불러들인, 불충성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10회)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2) 부처 불교의 죄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겨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는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는 싫어하면서도 존경받기는 원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은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베풀지는 않았습니니다. 내게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기는 원했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2) 부처 불교의 죄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부처를 불교를 섬겨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는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는 싫어하면서도 존경받기는 원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은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베풀지는 않았습니니다. 내게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기는 원했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2) 부처 불교의 죄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부처를 불교를 섬겨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는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는 싫어하면서도 존경받기는 원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은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베풀지는 않았습니니다. 내게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기는 원했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2) 부처 불교의 죄

“하나님, 나와 내 부모와 조상들이 부처를 불교를 섬겨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일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는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는 싫어하면서도 존경받기는 원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은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베풀지는 않았습니니다. 내게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풍성하기는 원했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와 불교를 섬김으로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나를 누르고 있어서였지만,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천성이 게으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체력이 약해서요, 내 두뇌에 한계가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영적인 일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즐기고 노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그래서 내 체질은 영적이지 않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막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저의 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마귀를 따르는 길인 줄을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불충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는 제가 게으름의 영과 불충성의 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쓴뿌리제거(22)- 불충성의 영-

- 십자가 세우기 -

“나와 내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를 섬겨 불러들인, 불충성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10회)